

<https://janehwang.com/>

## **JANE HWANG**

Portfolio (2020-2025)

### ***PROJECT***

Sonic Relics (2024 - work in progress)

How to (not) live a legacy? (2023)

Round, Convex, them. (2022)

000 (2021)

Stone Stacking (2020)

Water and Blood (2020)

### ***PERFORMANCE***

CloudChoir for our Beloved (2020)

Our Time (2024)

Purgatory Society: A Liminal Walk (2025)





*Sonic Relics (2024-work in progress) 1-ch video installation*  
Video stil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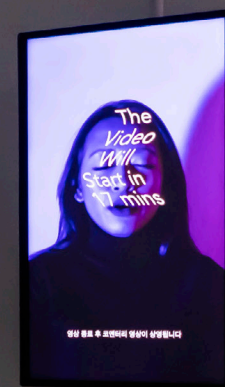


이 영상설치 작업은 소리를 매개로 전달되는 먼 과거의 역사적 파편들이 우리의 기억과 감각적 경험을 어떻게 형성하는지 탐구한다. 작업은 1910년 제 1차 세계대전 당시 녹음된 한국인 병사의 음성 기록물에서 출발한다. 화자들의 행적을 따라가며, 발굴된 역사적 자료들을 오늘날의 시공간 속에 재구성하는 이 작업은 초기 사운드 매체가 지닌 물질성과 아카이브 기억의 윤리에 질문을 던진다.

본 작업은 올해 11월 서울에서 전시될 예정이다.

*Sonic Relics (2024-work in progress) 1-ch video installation  
Video stil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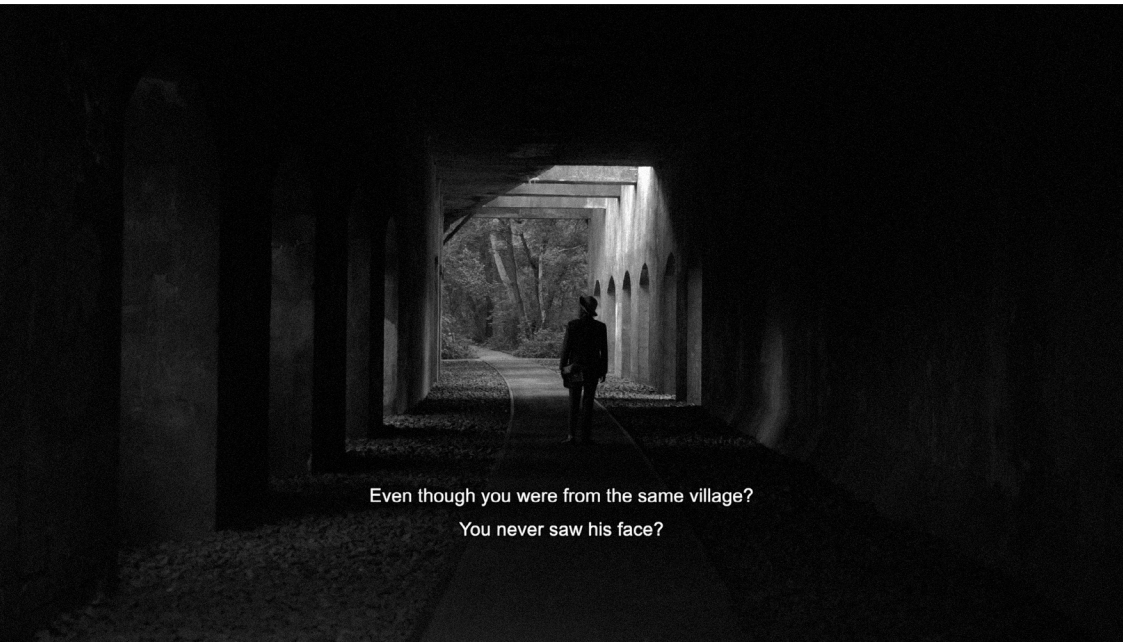


*How to (not) live a legacy? (2023) 2-ch video installation, 30 min  
Exhibition view, Art Space Hyeong*





What year did grandpa's brother... defect to North Kore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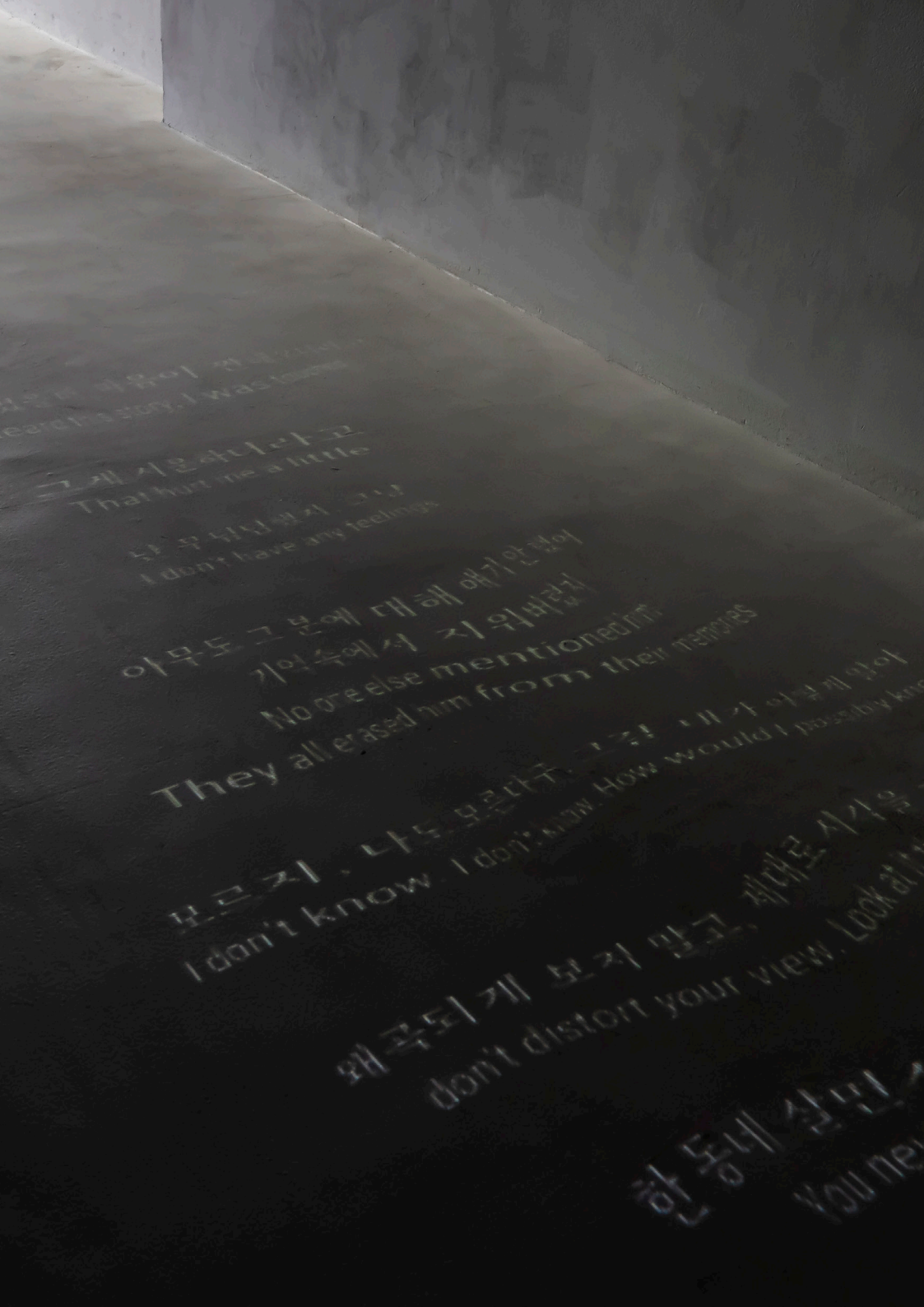


Even though you were from the same village?  
You never saw his face?



*How to (not) live a legacy? (2023) 2-ch video installation, 30 min  
Video stil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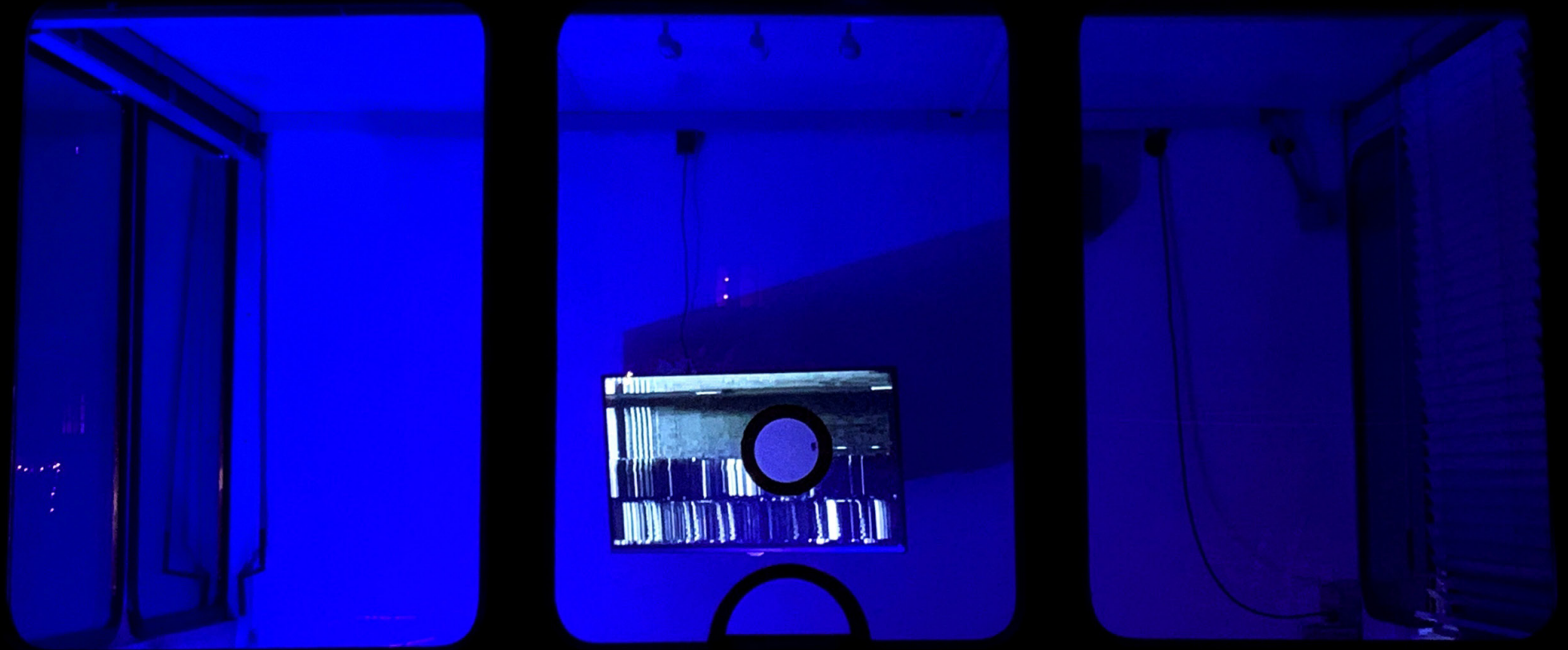




‘이 선생에 관하여’는 오랫동안 잊혀진 가족의 낡은 기억을 들여다보고, 조각이 나버린 불완전한 내러티브를 다시금 조합하는 과정에서 기획한 다큐멘터리이다. 화자는 가족 내에서 사라진 한 인물의 행방을 파헤친다. 영리하고 용감했던 이 선생은 한국전쟁의 발발과 동시에 자취를 감추었고, 그로부터 50여년이 지난 어느 날, 북한 국경 근처에 위치한 중국의 한 도시에서 모습을 드러낸다. 화자는 시간을 거슬러 이 선생과 그의 가족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를 조사하며, 묻어 두어야만 했던 기억을 파헤치기 시작한다. ‘이 선생에 관하여’는 터부시되는 가족사에 접근하는 세대간의 엇갈린 시선, 그리고 과거의 인물인 이 선생과 화자 사이의 삶과 죽음을 넘나드는 대화를 통해 기억이 잊혀지거나 되살아나는 여정을 그려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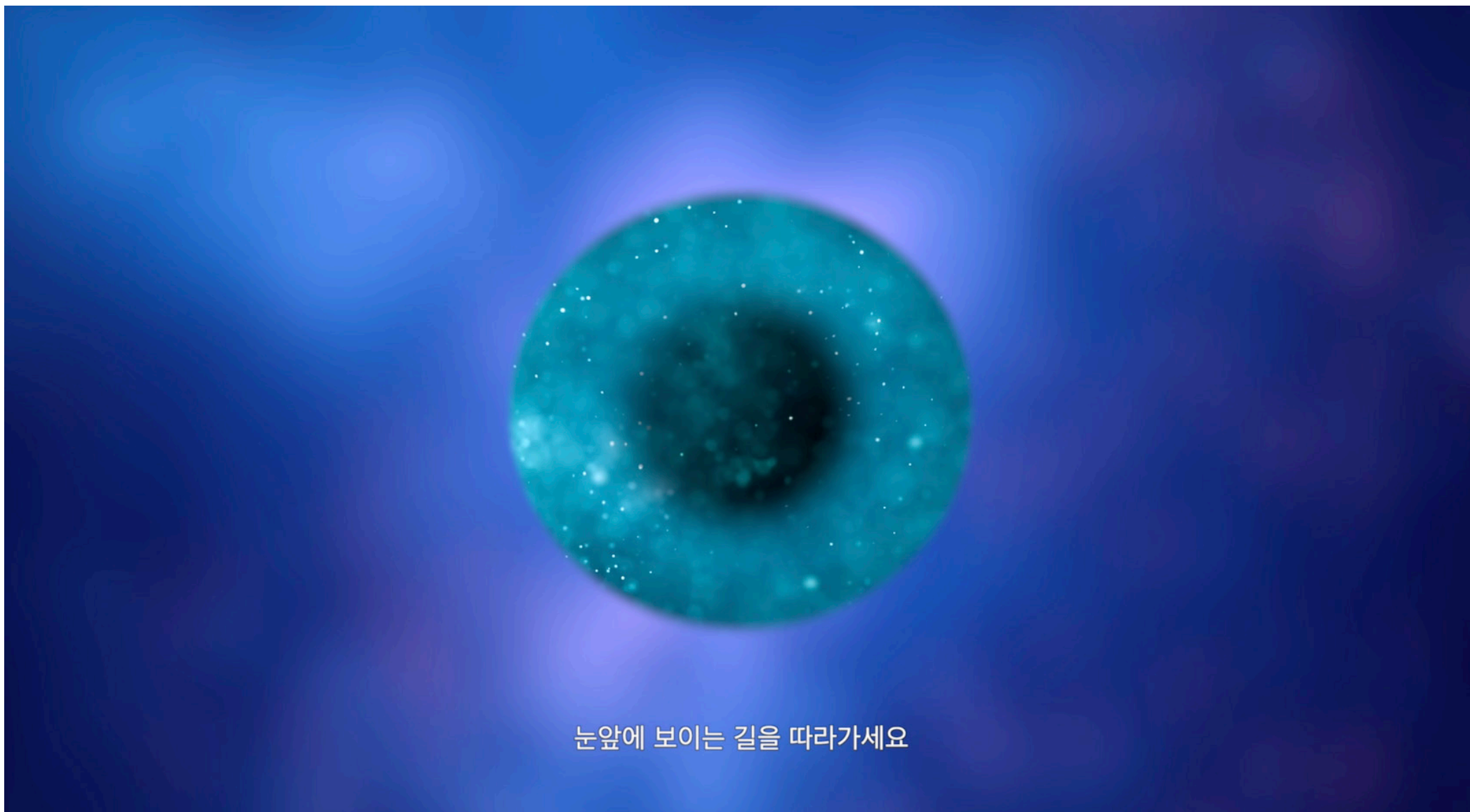
*How to (not) live a legacy? - words (2023) 1-ch video installation*  
Exhibition view, Art Space Hyeon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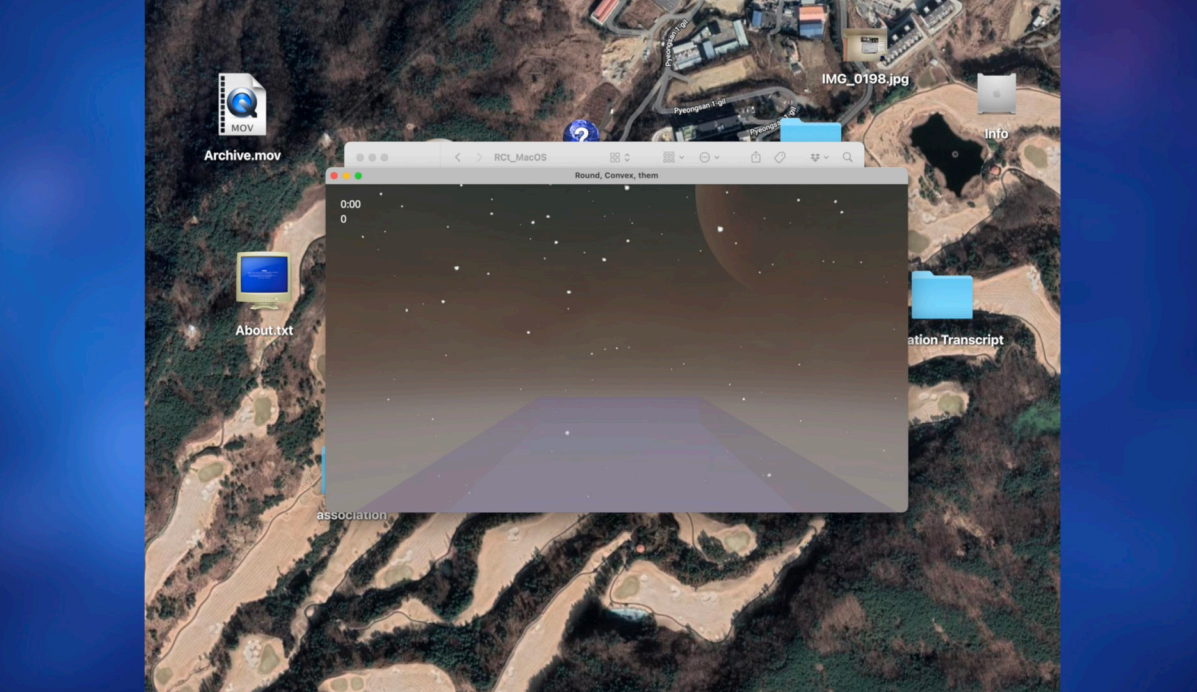
*Round, Convex, them. (2022) 1-ch video installation  
Installation view, Raum on Demand, Alte Münz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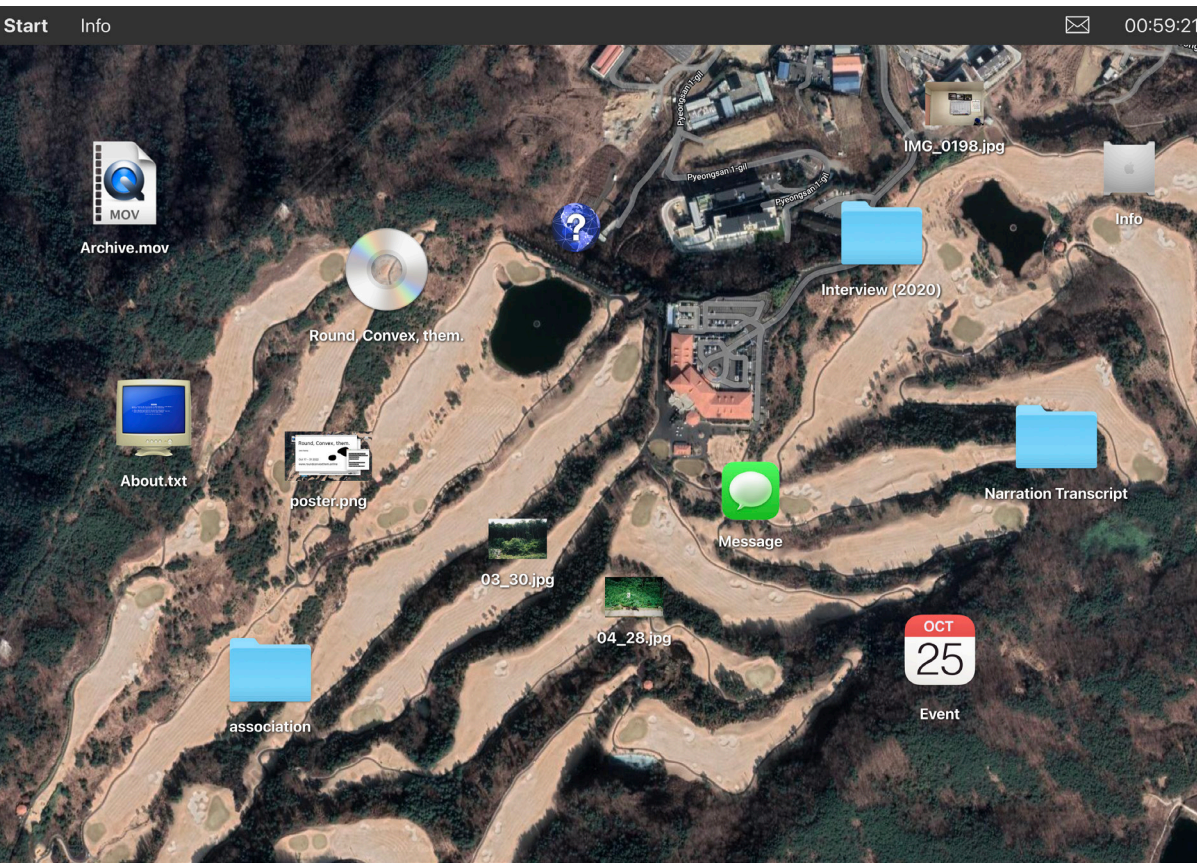
*Round, Convex, them. (2022) Website for 3D game and archive  
3D game video still*





우리는 기록되지 못한 기억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을까? 기록은 권력에서 비롯된다. 우리 사회에서 기록되지 못한 기억들의 집합체는 보이지 않는 저 먼 곳에서 뭉치고 뭉쳐 큰 덩어리를 만들어낸다. 그 덩어리는 목격하기를 거부하는 우리의 주변을 에워싸 우리를 지켜본다. 덩어리는 이렇게 말한다. 정말 내가 보이지 않나요, 아니면 그런 척 하는건가요? 기억되지 못한 것을 기억하려는 행위는 부자연스러운 노력이며, 망각에 대한 투쟁이다.

한국전쟁은 단일 전쟁으로는 가장 짧은 시간동안 가장 많은 민간인 희생자를 낸 전쟁이다. 한국전쟁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선은 비롯된 어쩔 수 없는 시대적 비극이라는 큰 틀에서 전승되어 왔으며, 그 과정에서 보통사람들의 인권, 자유, 가족과 이웃 등의 가치들은 별다른 담론을 이끌어내지 못하고 있다. 특히, 전쟁 트라우마로부터 완벽히 격리된 무균실에서 삶을 지속해온 우리 젊은 세대는 승리의 역사로 기록되어온 주류의 담론에서 벗어나, 겪지 않은 경험을 이해해야 한다. 이 프로젝트는 예술가가 기록되지 않은 역사의 틈새를 적극적으로 헤집고, 탐험하며, 재가공하는 과정을 통해 과거에 지속적인 현재성을 부여한다. ‘둥글고 볼록하게 맺힌 것’은 분절된 역사에 방치된 기억의 틈새에서 살아가는 잊혀진 희생자들을 현실 공간으로 끌어오기 위해 기획되었으며, 기억되지 못한 역사의 빈틈을 현 세대가 어떤 방식으로 인지하고 공유할 것인지에 대한 질문을 던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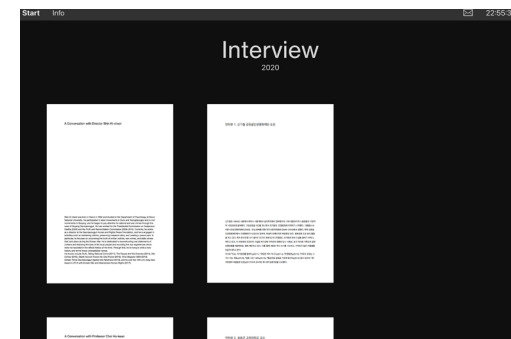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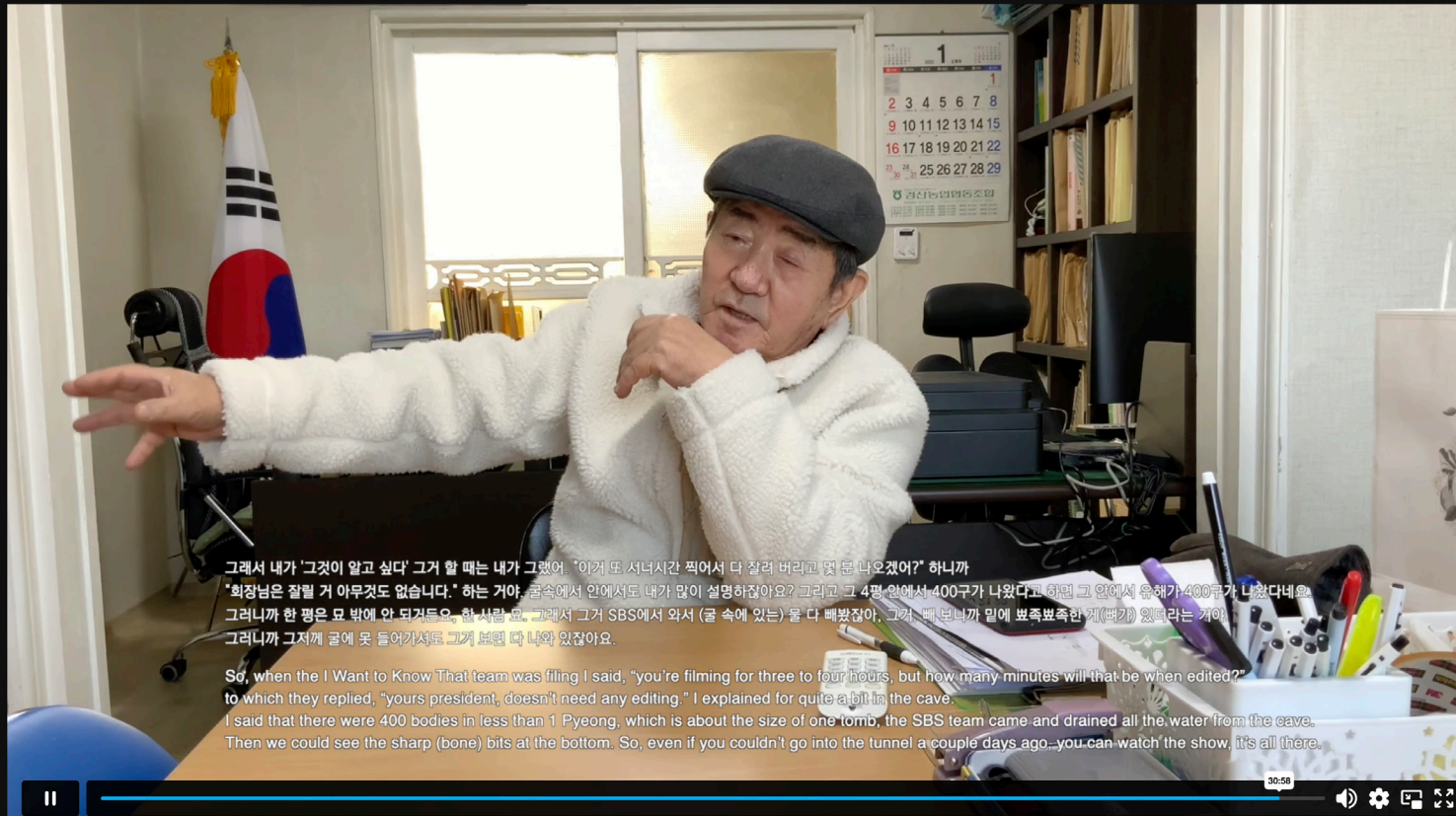


*Round, Convex, them. (2022) Website for 3D game and archive Website screensho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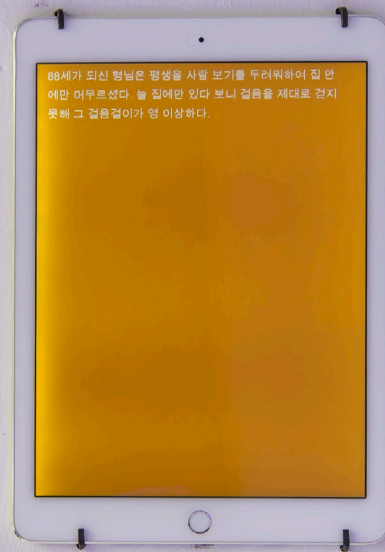
# Message

Na Jeong-tae



Round, Convex, them. (2022) Website for 3D game and archive  
Website screenshot





*Round, Convex, them. (2022) 1-ch video installation  
Installation view, Art Space Hyeon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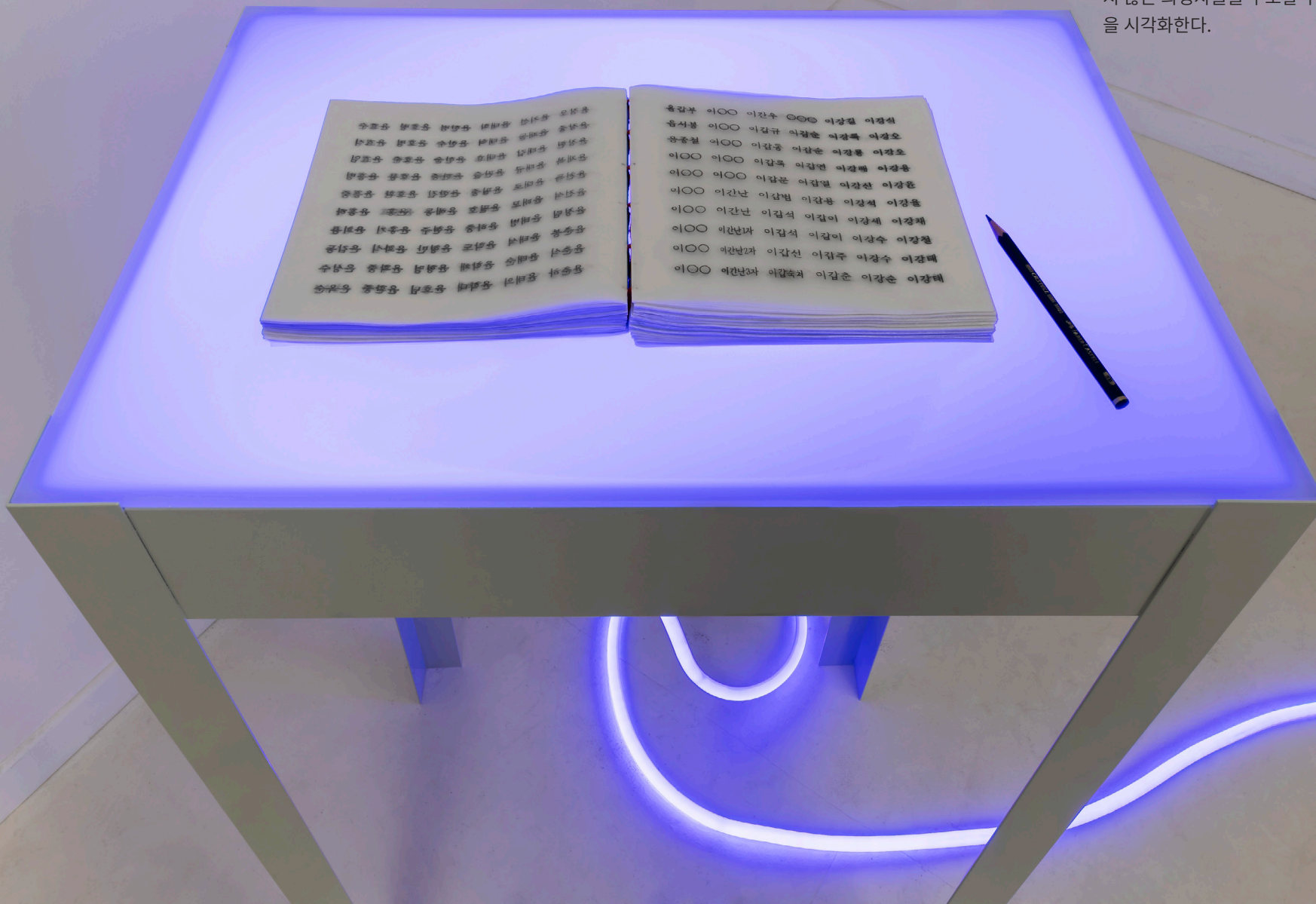




000 (2021) C-print, Pencil on paper, mixed media installation  
Exhibition view, Art Space Hyeong



‘000’는 1평(3.3m<sup>2</sup>)의 1/10 크기로 제작된 작은 책자로, 1평은 국립묘지가 한국전쟁에 참전한 군인과 경찰 개개인에게 할당한 묘지의 크기와 동일하다. 이 종이 무덤에는 반투명 종이에 연필로 적힌 약 14,000명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 희생자들의 이름 목록 뒤에는 수백 개의 동그라미 세 개(000)가 이어지는데, 이는 이름을 알 수 없는 희생자들을 표기하는 한국식 방식이다. 이를 통해 신원이 밝혀지지 않은 희생자들을 추모할 수 있는 최소한의 공간을 시각화한다.







000 (2021) C-print, Pencil on paper, mixed media installation  
Installation documentation







*Stone Stacking (2020) 1-ch video installation  
Exhibition view, Art Space Hyeong*





‘돌탑쌓기 (Stone Stacking)’는 마을 어귀의 돌탑이 상징하는 공동의 안녕과 기원의 마음에 주목한다. 이 작업은 작가가 이전부터 여러 국가에서 수집해온 돌들을 이용해, 팬데믹이라는 비일상의 시간에 영상으로 제작되었다. 돌들이 끊임 없이 쌓아 올려지고, 이내 다시 무너지는 루프 형태의 영상이다. 건설과 해체를 반복하는 돌탑의 순환 속에서, 공동체의 염원, 그리고 기복과 의례를 통해 무언가를 빌고 행하는 인간의 근원적인 과정을 되짚어본다.



*Stone Stacking (2020) 1-ch video installation  
Video still*





*Water and Blood (2020) 2-ch video installation  
Installation view, The Association of Icelandic Visual Artists*





CloudChoir for our Beloved (2020) 1-ch video installation, 4 min 45 sec  
Video still





‘雲唱團(운창단)/CloudChoir for our Beloved’는 다양한 국적의 예술가들이 함께 모여 아시아 국가들의 자유 투쟁의 상징이 된 노래 ‘임을 위한 행진곡’을 합창하는 온라인 퍼포먼스이다. 이 프로젝트는 아시아의 자유와 인권을 지지하는 각국의 예술가들이 모여서 언어와 거리를 뛰어넘는 연대를 도모하기 위해 기획되었다. 참여 예술가들은 각자의 모국어 또는 본인의 민족성을 대변하는 아시아 언어로 ‘임을 위한 행진곡’을 부르고, 이를 직접 오디오 또는 비디오로 촬영하였고, 이는 영상설치와 콤팩트 카세트 형태로 제작되었다.

CloudChoir for our Beloved (2020) Compact cassette and poster, 20 min, 50 edition





*Our Time (2024) Audiovisual installation  
Exhibition view, Sternschuppen at Volksbühne am Rosa-Luxemburg-Platz*





‘Our Time’은 인터랙티브 사운드 및 공간 설치 작업으로, 청각 경험을 통해 소리의 풍경과 내면의 독백을 전달한다. 이 프로젝트는 소리를 다큐멘터리 매체로 활용하여 현대의 소리 풍경, 즉 자연, 도시 환경, 인간 상호작용 속에서 시간의 차원을 탐구한다. 도시와 문명의 사운드시케이프를 수집하면서 동시에 사회와 자연에서 들리거나 혹은 들리지 않는 것, 기록 가능한 것과 가능하지 않은 것의 경계에 대한 질문을 던진다.







*Purgatory Society: A Liminal Walk (2025) Workshop and Performance*  
*The North Korean Embassy and nGbK Berlin*





한국의 전통 장례행렬에서 출발한 이 프로젝트는 집단적 애도를 위한 공공 의식을 제안한다. 이주의 경계선을 따라 느린 몸짓으로 걷는 행위를 통해, 퍼포먼스는 사적인 상실을 넘어 쫓겨난 이들의 삶과 소거된 역사, 그리고 먼 땅에서 들려오는 비극으로 인해 공유하는 우리의 슬픔을 애도한다.